

**그린투어리즘을 이용한
초지축산 농가 사례**

*Practice of grassland farming by sheep
in the green tourism*

연 사 : 전 영 대 (Y. D. Jeon)

(대관령 양떼목장)

그린투어리즘을 이용한 초지축산 농가 사례

전 영 대 (Y. D. Jeon)

대관령 양떼목장

목 차

1. 초 지
2. 면양 사육
3. 축사 시설
4. 현재 실행 프로그램
5. 관광객 추이
6. 건초 판매

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다고들 합니다.

왜 우리 국민들은 땅 좁다고 불평만 하고 지천에 널려있는 야산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줄 모를까?

유용하게 활용만 된다면 이 좁은 국토는 얼마든지 넓게 사용될 수 있을 텐데...

이런 점들이 제 청소년 시절의 막연한 의문점 이었습니다. 성년이 되어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머릿속엔 항상 이런 생각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대관령 지역의 어느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.

도시생활에만 익숙했던지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 떼들의 모습이야말로 한 폭의 살아있는 풍경화였습니다.

이 광경에 너무 감동을 받아 저는 직감적으로 “<이 느낌, 이 광경>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?”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(철없는 엉뚱한 생각이겠지 하면서도...)

적어도 제 눈에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초지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버려진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좁은 국토를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? 이것이 지금 제가 관광목장을 하고 있는 동기입니다.

하지만 갈등도 많았습니다.

왜냐하면 언론에서는 UR 협상으로 우리 축산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우려의 보도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골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

2년여의 고민 끝에 목장에서 처음 느꼈던 “이 느낌, 이 광경”을 꼭 상품화 시켜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.

초지 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 당시 관광목장 이라는 것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.

특히 남들은 힘들다고 축산에서 하나둘씩 떠나는데 나라도 혼자 들어가서 꺼져가는 우리 축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.

그 후 어려운 결단을 내려 '88년 9월에 서울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우리 4식구(아내, 아들 2명)가 황량한 이 곳 대관령 정상에 이삿짐을 풀어놓으면서 목적은 분명하지만 혹독한 고생길로 들었던 것입니다.

'88년 9월에 폐허된 목장(국유지 62,000평)을 인수하여 '89년부터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목장 일은 지난해 3월까지 16년 동안 고용인 없이 저와 아내 단 둘이서만 일을 해왔습니다. (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)

너무나 힘겹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도무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(이사온 첫 해 가을에는 전기가 없어서 한 달간 임시 거처에서 밤에 촛불을 켜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).

전기와 전화 놓기부터 시작하여 임시 관리자 보수, 진입로 만들기, 축사 신축, 초지 조성, 목책 설치, 목도 설치, 양 입식, 관광목장 설계 등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상태이고 아내와 단 둘이서만 해결해야 했습니다.

모든 일이 다 어려웠지만 양 목책 설치는 4년 간 쳐서 완성 시켰습니다(다른 급한 일들을 해가면서 계속 4년간 쳤음).

양 목책은 국내에는 없는 시설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 나름대로의 연구를 거듭하여 설치했습니다.(강선은 5~6선을 띄우고 철근 두께 19mm 짜리를 175cm 길이로 잘라서 폭 60cm 정도로 촘촘하게 한 간격으로 햄머로 쳐서 땅에 박았음.) 목책 총 길이가 7.5km에 철근 12,000개 정도가 들어갔고 전체 면적을 12구역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. 아내와 제가 햄머로 쳐서 땅 속 80cm 정도 들어가게 박는 작업인데 3년쯤 하니깐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? 또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? 하면서 인생에 회의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.

이 때부터 고사성어인 “精神一到 何事不成”을 읊어 댔습니다.(지금도 역시 어려울 때에 자주 읊어 댑니다.)

저는 이 때 다짐하기를 나는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道 닦기 위해서 고행하는 과정이라고 입버릇처럼 위안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

칭 “나는 대관령 도사요” 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까지 했습니다.

힘겨운 일을 16년간이나 버티다 보니 저는 인간이 인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도 대체 어디쯤인가? 를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.

인내의 한계점을 넘나들며 생활하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모든 일에 초연해 지 더군요. 이 기회에 지면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동안 묵묵히 따라준 제 아내에게 고 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.

그러는 동안에 제가 간절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목장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 기 시작했습니다.

4년 전부터 방송과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저의 목장이 정겹게 소개되기 시작 했습니다.

매스컴에서 소개를 하면서 목장이 너무 아름답다. 목가적이다. 아기자기 하고 참 느낌이 좋다 등 제가 정확하게 19년 전에 느꼈던 그 당시의 “이 느낌, 이 광경” 그 자체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.

저는 그 당시의 “이 느낌, 이 광경”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 목장을 시도해 보 겠다는 계획이 이제야 햇빛을 보는 것 같아져 요즘에는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있 습니다.

참고로 저의 목장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.

1. 초 지

- ① 면 적 : 62,000평
- ② 초 종 : 티머시와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주종임
- ③ 조성방법 : 잡목제거와 화입 후에 걸뿌림 실시(장마 전에 비료와 풀씨를 맨땅 에 뿌려 놓으면 장마기간 동안에 발아 됨)
- ④ 관리방법 : 전체 목구를 12구역으로 분할했음
한 목구 당 4일정도로 윤환 방목 실시
방목용으로만 사용
- ⑤ 시비방법 : 벼 복합비료를 헥타당 25포 정도를 봄, 가을에 살포
(2003년까지는 운영비 부족으로 정상적인 비료 살포를 하지 못하 였고, 과방목을 하여 상당 부분 초지 관리에 실패 한 적이 있음)
- ⑥ 문 제 점 : 운영비 부족으로 초지가 부실화 된 상태에서 애기수영이 번져서 매년 일정량씩 자비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음.
하지만 아직도 애기수영 제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

◀ 한가롭게 눈길을 걷고 있는 양떼
(대관령 양떼목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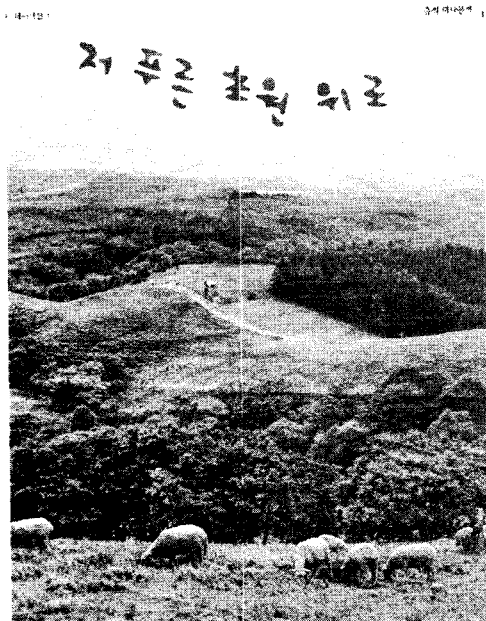
▶ 전영대 대표 부부가 양떼의 해 첫날에
양에게 건초를 주고 있는 모습
(2003년 1월 1일)



양처럼 산다
별일 없겠지

국내 최대 양떼목장 주인 한영대-이강

매일 단 소고기 양 200마리, 30여종의
1년치 화양 오지서 아끼 아꼈던 근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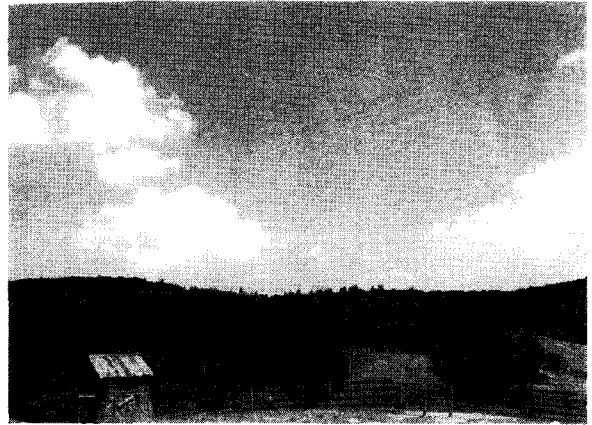


◀ “저 푸른 초원 위로” 양떼목장 전경
(2004년 6월 3일 서울신문)



◀ 풀을 뜯고 있는 양떼
(2004. 7. 30)

TV 드라마 “가을동화”의 세트장 ▶



◀ 방목중인 양떼

2. 면양 사육

- ① 용 도 : 주로 관광용(증가되는 마리 수는 판매로 조절)
- ② 품 종 : 코리데일과 포러스(호주산)
현재는 코리데일과 포러스 잡종이 많음
- ③ 두 수 : 202두(현재)
- ④ 사육관리 : 5월 초순 ~ 11월 초순까지는 초지에 24시간 방목
11월 중순 ~ 다음 해 4월 말까지는 축사 사육

3. 축사 시설

축사 2동에 부속동 1곳이 있으며 축사 A동은 먹이주기 체험용으로도 겸용하고 있음. 양 200두 정도를 효과적으로 사육하기에는 비좁은 상태임.

- 축사 A동 : 60평
- 축사 B동 : 50평

4. 현재 실행 프로그램

- ① 건초 먹이주기 체험
- ② 산책로 걷기 체험
- ③ 눈썰매장 제공(겨울철에만 초지에서 활용하고 있고 무료 제공)

5. 관광객 추이

- ① 남녀노소가 다 관람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젊은층이 많음
- ② 가족 단위의 일반 관광객(어린이를 둔 젊음 층의 부부)과 여행사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초·중학생들의 현장 학습 관광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
- ③ 2003년 관람객 추정 : 약 4만 명 정도
2004년 관람객 추정 : 약 7~8만 명 정도
2005년 관람객 예상 :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

6. 건초 판매

입장료를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그 대신에 건초를 팝니다.

목장에 입장하려면 1인당 건초 1봉지씩 구입해야 합니다.

- 성인 : 2,500원
- 학생(초·중·고) : 2,000원
- 5세 이하 : 무료
- 단체(10인 이상)는 각각 500원씩 할인

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제가 목장을 경영하며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관광목장 가꾸기가 금년 들어 17년째입니다.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.

그 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관광목장은 감성 경영기법이 많이 요구되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 판단됩니다.

서로 다른 분야인 관광과 목장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느낌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초지 자원은 목장경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입니다.

초지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주변 경관과 자연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축산 소득원 창출 차원에서 축산 관계자의 폭 넓은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.

저의 목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산책로를 거닐면서 경관이 아름다운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산책이 끝나면 양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.

이 두가지 체험을 통하여 관광객들은 목가적인 느낌에 휩싸여 만족할 것입니다.

Green tourism의 성공요소는 초지 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가축과 자연 경관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물론이고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특유의 감성 marketing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.

끝으로 저를 초지학회 이번 symposium 제 3주제 연사로 초청해 주신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이종경 박사님과 (사)한국초지학회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황계 3리 14-104

대관령 양떼목장

TEL : 033) 335-1966

대표 : 전 영 대

☞ **대관령 양떼목장 오시는 길**

영동고속도로를 타고가다가 황계 IC에서 빠져 황계시내(오른쪽)로 가다가 다시 (구)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든다(이정표 참조).

목장은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뒤편 약 300m 떨어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.